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 위법 논란

도의회 예결위 전문위원실 "지방재정법 위반 해당"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서 투자 심사"
도 "유상증자 예측 못해 법에 규정된 예외 사유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3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도의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계획이 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일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심사를 앞두고 내놓은 검토보고서에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은 사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며, 또 이런 투자 심사 대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계획)에도 반영돼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추경에 편성된 40억원 규모의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은 제주도가 올해 수립한 '2021~20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조만간 실시될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예산담당관실 투자 심사를 거쳐 주식 매입 예산으로 40억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다.

제주도의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는 지난해에 이번이 두 번째다. 제주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할 때 주식 80억원 어치를 사들이는 계획으로 도 예산담당관실의 투자 심사를 받았지만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땐 재정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며 매입 규모를 4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해 예산담당관실 투자 심사 때도 제주항공 주식 매입 계획은 중기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예산담당관실은 이점을 문제 삼아 향후 중기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을 내걸고 투자를 승인했다. 그러나 올해 초 수립된 중기계획에도 이미 투자한 주식 40억원 어치 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입할 주식 40억원에 대한 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이같은 투자 절차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제주도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는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사업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제주도의 주식 매입 절차는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결위 전문위원실은 예외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결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는 주식 80억원을 매입하는 계획으로 심사를 받았고, 또 앞으로 중기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이 승인 조건을 이행했다면 지난해 이미 투자한 40억원에 더해 앞으로 투자할 40억원도 모두 중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 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있었다"면서 "불가피하게 중기계획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주도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올해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현재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갑론을박

확장 폭 축소 방침에 김경학 의원 "차라리 하지말라"
홍명환 의원 "보완절차 끝날 때까지 갈등 조정 매진"

찬반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제주 비자림로 확장·포장공사를 놓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비자림로 확장·포장 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저감대책 보완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차로 확장 폭을 축소하는 한편, 중앙분리대 설치 방안을 폐기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사업은 242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2.94㎞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포장하는 것으로 2018년 공사가 시작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부실, 환경 훼손 논란 등을 낳으며 현재는 중단된 상태다.

당초 제주도는 9m로 된 기존 도로 폭을 22m로 확장할 계획이었지만 도로 폭이 너무 넓으면 노루 등 야생동물이 길을 건너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지나가는 차량에 치일 확률이 높다는 지적에 따라 전체 도로 폭을 15.5m로 변경하는 등 기존 계획보다 확장 폭을 줄여 공사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다. 중앙분리대 설치 계획은 노루가 길을 건너는 데 방해가 돼 아예 폐지됐다.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제주시 구좌읍을 지역구로 둔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김 의원은 그동안 비자림로 확장·포장공사가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조속히 추진해야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차로 폭이 1~2m 줄어든다고 해서 애기뿔쇠똥구리가 살아나느냐"면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공사를 차라리 중단하라"고 쏘아붙였다. 도로 확장 폭이 기존 계획보다 축소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주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큰 실효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같은 당 소속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제주 비자림로 확장·포장공사가 중단되고 찬반 갈등이 벌어진 원인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한 제주도에 있다면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와 제주도가 진행하는 보완절차가 끝날 때까지 찬반 갈등 조정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홍 의원은 "보완절차가 진행 중인데 의회가 공사를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 것이냐"고 추궁한 뒤 같은 당 김경학 의원과 고용호 의원(성산읍) 등 25명이 발의한 제주 비자림로 확장·포장공사 조속 재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물었지만, 도는 즉답을 피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민주당 경선 첫 개표… 기선제압 누가?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 합동연설회서 결과 공개
충청권 권리당원 전체 10%… 첫 대결 놓고 후보들 사활

민주당, 보건의료노조와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운데),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이 시작된 가운데 오는 4일 첫 지역 경선 결과가 나온다. 첫 경선 결과는 향후 경선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보들은 지역 표심 잡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 지역에서 순회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

합동연설회에서는 순회경선일까지 온라인ARS 투표를 진행한 해당 지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당일 현장 투표를 하는 지역 대의원 투표 결과 및 사전에 현장 투표를 신청한 일반당원·국민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함께 공개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부터 대전·충남 지역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다.

현장투표에 나설 일반당원·국민 선거인단이나 대의원보다는 권리당원이 많아 이들의 선택이 순회경선 첫 주말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리당원은 대전·충남이 5만1775명, 세종·충북이 2만3194명으로 충청권 권리당원은 약 7만6000여명이다. 민주당 전체 당원의 약 10% 정도이지만 향후 경선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첫 대결인만큼 후보들은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청권에서 대세론을 확인한다면 이후 호남에서 확실한 굳히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충청권에서 이 지사와 최대한 접전을 한 뒤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호남을 시작으로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대구·경북(9월 11일), 강원(12일), 광주·전남(25일), 전북(26일), 제주(10월 1일), 부산·울산·경남(10월 2일), 인천(3일), 경기(9일), 서울(10일) 순으로 지역별 경선을 치를 예정이다.

국회=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위성곤 '식량안보·기후위기 대응 2법' 발의

식량안보·탄소중립직불제 도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사진)은 2일 식량안보와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개정안은 5년마다 식량 자급목표를 수립할 때에 자급률 상향을 의무화하고, 자급목표에 따른 농지 확보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급목표의 지표에 국민 기본먹거리인 김치자급률도 포함하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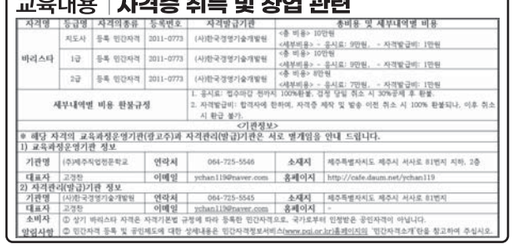
위 의원은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은 2020년도 기준 21%에 불과해 쌀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각국이 식량수출 제한조치를 취하는가 하면 국제 곡물가격은 급등하고 있다"며 "식량자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정부는 5년마다 식량자급목표를 수립하고 있지만 자급률은 계속 하락해왔고, 2018년 수립한 자급목표는 이전보다 하향된 바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법 개정안은 식량안보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가의 실천행위를 지원하는 '식량안보직불제'와 '탄소중립직불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부미현기자

2021년 가을학기 탐나는 5060인생학교
<탐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인생학교'에 간다!>
수강생 모집
교육기간
2021. 9. 15.(수) ~ 11. 24.(수)
매주 수·목요일 9:30~12:30
모집대상
50~64세(1957~1971년생) 20명(선착순)
모집기간
2021. 9. 1.(수) ~ 9. 12.(일) 18:00
신청방법
제주평생교육다모아(www.damoa.jeju.kr)
주요내용
- 인생설계(새로운 삶 준비, 대인관계)
- 건강관리, 재무설계
- 사회참여(경력설계, 사회공헌 활동 등)
문 의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064-755-9874~5)
제주공동체문화활동가
입문·기초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홈페이지(www.jiles.or.kr) 참고

동려평생학교
자원교사 모집
어려운 환경속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성인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과 진취적인 자세를 확립하도록 하고, 남을 위하는 봉사정신을 키워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동려평생학교에서 자원교사를 모집합니다.
국어교사 ○명, 수학교사 ○명
주 2회, 저녁 6시 30분~9시
(시간 조율 가능)
전공자 우대
이력서 지참 방문 요함
동 려 평 생 학 교
문의 : 064-752-6381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 환영
전기기능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능사(태양광)취득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27(3개월, 240시간)
교육시간 09:00~13:00(평일 주간, 일일 4교시)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 725-5545
교육내용 전기 이론 & 실기, 태양광 이론 & 실기
전기설비 직무능력 향상 과정(주간반)
교육기간 2021.10.04~2021.12.10(2.5개월, 150시간)
교육시간 14:00~17:00(평일 주간, 일일 3교시)
대 상 위기산업직종 경험자(재직자, 실업자) ☎ 725-5545
교육내용 전기 심화 이론, 전기 설비 이론 및 실습
커피 바리스타 과정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자격증 취득 및 창업 관련

자격명	등급명	자격의종류	등록번호	자격발급기관	총비용 및 세부내역별 비용
바리스타	지도사	등록 민간자격	2011-0773	(사)한국경영기술개발원	<총 비용> 10만원 <세부비용> - 응시료: 9만원, - 자격발급비: 1만원
	1급	등록 민간자격	2011-0773	(사)한국경영기술개발원	<총 비용> 10만원 <세부비용> - 응시료: 9만원, - 자격발급비: 1만원
	2급	등록 민간자격	2011-0773	(사)한국경영기술개발원	<총 비용> 8만원 <세부비용> - 응시료: 7만원, - 자격발급비: 1만원
세부내역별 비용 환불규정					1. 응시료: 접수마감 전까지 100%환불 접수 마감 전도 시 30%공제 후 환불. 2. 자격발급비: 합격자에 한하여,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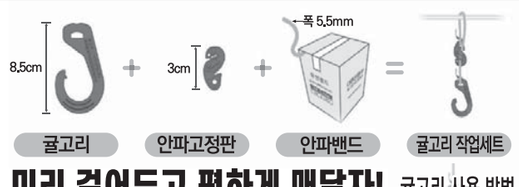
<기관정보>
※ 해당 자격의 교육과정운영기관(장교주)과 자격관리(발급)기관은 서로 별개임을 안내 드립니다.
1) 교육과정운영기관 정보

기관명	(주)제주직업전문학교	연락처	064-725-5546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81번지 지하, 2층
대표자	고경한	이메일	ychan119@naver.com	홈페이지	http://cafe.daum.net/ychan119

2) 자격관리(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사)한국경영기술개발원	연락처	064-725-5545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81번지
대표자	고경한	이메일	ychan119@naver.com	홈페이지	-

소재지 ◎ 상기 바리스타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참고사항 ◎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법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si.or.kr)홈페이지의 '민간자격소개'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컴퓨터(OA관련, 전산회계 1급, 2급) 과정
대 상 실업자 · 재직자 · 일 반
교육기간 상시 모집 중 ☎ 725-5545
교육시간 오전, 오후, 야간 매일 3시간씩
교육내용 OA관련(사무자동화, ITQ, 컴활2급), 전산회계 1급, 2급
2021년 제1회 전기기능사실기 9명 응시 9명 합격(100%)
문*민, 한*남, 강*열, 김*현, 옥*환, 이*석, 정*완, 최*영, 최*혜(총9명)
제주직업전문학교
제주시 서사로 81 (삼도1동) 중앙여중 정류장, 진영마트 맞은편(064)725-5545 http://www.jejuvs.co.kr

만감류 매달기! 다인 귤고리


미리 걸어두고 편하게 매달자!
1.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이후엔 던지기 생략가능
2. 높은 효율! 귤고리 한 개에 15개 이상 매달기 가능
3. 미리 작업! 매달기작업 시즌 전에 미리 던져 둘 수 있음
4. 편리한 수거! 수확 후 유인끈을 간단히 수거 가능
귤고리 사용 방법

'안파고'드는 유인줄 "안파고"

+ 귤, 단감, 대추, 사과, 체리, 복숭아, 자두, 배, 호두 등 모든 과수나무의 처진 가지, 늘어진 가지 해결!
+ 원터치&초간편 길이 조절.
+ 가지에 걸고 고정판에 끼우면 작업 끝.
안파고 小 110호(1m), 115호(1.5m)
안파고 大 210호(1m), 215호(1.5m)
까치, 까마귀, 새 쫓을 때! - 다인독수리연

4m폴대 세트
(대형연, 소형연)
7m 폴대 세트
(대형연)
질긴 천, 강한 부품
비슷해도 다르다!
귤고리, 유인추, 유인줄, 이클립 기타 영농자재
DA IN 다인산업(주) 경북 예천군 보문면 산단길 14-28
상담 및 문의 054-652-3725, www.dainfine.com